피안과 차안 연결하는 지혜의 배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⑬ 극락으로 인도하다, 반야용선(般若龍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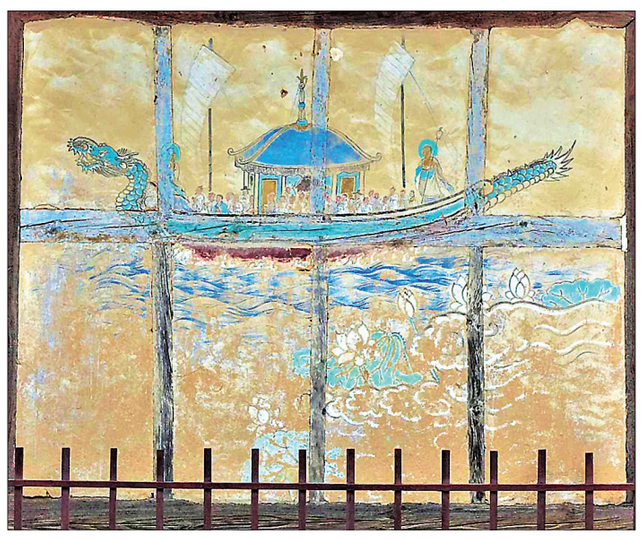
극락세계 도달 위한 배, 신앙심의 발현
불교 사후 세계관·극락왕생의 염원 보여
고려시대부터 작품 확인, 조선시대 풍성
모든 이 품는 자비사상·포용력도 담겨



일본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 반야용선(고려 1294년경).



반야용선도(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외부 후벽 반야용선도(근대).



청도 운문사 대웅전 내부 용가와 악착동자상(조선 후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다.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전 세계 어딜 가나 바다를 찾아볼 수 있듯이 불교에도 바다가 존재한다. 불교문화 속 바다는 아미타(阿彌陀) 부처님께서 머무신다는 극락정토(極樂淨土), 즉 불국토(佛國土)에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인 동시에 현실과 이상 그 경계선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험난한 바다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그렇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듯이 불교에서도 배를 타야 한다. 바로 반야용선(般若龍船)이다. 중생들을 태워 피안(彼岸)의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그린 반야용선도는 후불탱화를 비롯해 사찰 벽화, 판화, 단청 등 다양한 소재로 표현된 불교미술 주제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토록 반야용선에 열광했던 것일까? 무더운 여름, 불교문화 속 시원한 바다를 감상하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반야용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극락으로 가는 배, 반야선

옛 조상들이 바다 끝 저 너머에 듣도 보도 못한 별천지가 존재한다고 믿었듯이 불교에서도 수평선(水平線)을 넘으면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극락으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배[船]였다. 불교 경전에는 피안과 차안(此岸)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배가 등장하여, 신앙심의 발현이자 수행의 방편으로 인식됐다.

이와 같은 배를 지혜의 배,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는 배라는 뜻으로 반야선(般若船)이라고 부른다.

반야선의 개념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唐)나라 때 승려인 도세(道世, ?~683)가 편찬한 〈법원주림(法苑珠林)〉에는 죽은 이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반야선에 탑승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인왕반야다라니석(仁王般若陀羅尼釋)〉에는 반야선이 중생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또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주문 중에는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으로 귀의하오니, 제가 빨리 좋은 방편 얻기를 원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으로 귀의하오니, 제가 속히 반야의 배타기를 원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으로 귀의하오니, 제가 빨리 고통의 바다를 건너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반야선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편이었다는 것과 불교의 사후 세계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갈망한 극락왕생의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용을 타고 바다를 건너다

불교의 반야선 사상은 열반(涅槃), 즉 죽음 이후 업(業)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체계화돼 극락왕생을 위한 목표로 정립됐고 중국 송(宋)나라 이후부터는 미술로 형상화된다. 물론, 처음에는 평범한 배로 등장하지만 시기가 흐르면서 용의 형상을 한 용선(龍船)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반야용선 도상이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을 구제하며 물을 상징하는 용만큼 반야선과 잘 어울리는 동물이 또 있을까? 반야선과 용의 만남은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환상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표현되는 반야용선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된다. 현재 일본 묘만지(妙滿寺)에 소장된 미륵하생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는 반야용선이 표현된 가장 이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 후기인 1292년경, 당시 왕실 화원 이성(李晟, 1251~1325)과 승려 자선(慈船, 생몰 미상), 희인(希忍, 생몰 미상)에 의해 제작된 미륵하생변상도는 미륵 부처님께서 강림한 용화세계(龍華世界)를 묘사한 것인데, 하단 부분에 머리와 꼬리가 달린 용선을 타고 가는 두 무리의 중생들이 좌우 대칭으로 표현돼 있다.

이를 통해 반야용선이 망자가 극락으로 가기 위한 이동 수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에게 갈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반야용선도가 더욱 풍성하게 표현된다. 안성 청룡사(靑龍寺), 파주 보광사(普光寺), 양산 통도사(通度寺), 제천 신륵사(神勒寺) 등 수많은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반야용선도에는 귀족이나 양반 말고도 승려, 여인, 평민 등 다양한 계층들이 북적대며 어울리고 있어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자비사상, 불교계의 원만한 포용력이 담겨있다.

조선시대 반야용선도에는 중생들 외에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과 지장보살(地藏菩薩),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까지 총출동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세 보살님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해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이 본업이니, 극락행 쾌속선(快速船)인 반야용선에 아미타 부처님과 세 보살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들 곁을 지켜주면서 무사히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 역할까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외에 반야용선도를 조각으로 표현한 용가(龍架) 맨 끝부분을 살펴보면 일명 악착동자(齷齪童子)라고 불리는 귀여운 동자상을 찾아볼 수 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다가 그만 배의 출발 시간에 늦어버린 것이다. 이를 알아챈 아미타 부처님께서 급한 대로 밧줄을 동자에게 던져줬고, 혹여나 극락에 가지 못할 걱정에 밧줄을 잡고 악착같이 매달려 있는 귀엽고도 안쓰러운 모습이다. 이와 같은 요소는 지친 마음을 이끌고 사찰에 온 신도들에게 웃음과 해학을 주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극락세계로 인도하고픈 아미타 부처님의 원대한 사랑까지 보여주는 독창성 넘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치며

극락, 불자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그곳은 끊임없이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육도윤회(六道輪廻)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동양 최고의 유토피아(Utopia)다. 이렇게나 좋은 낙원을 어찌 쉽게 갈 수 있겠는가? 당연히 살아생전 선업(善業)을 닦고 독실한 불심을 가져야지만 겨우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평생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어찌 선업만 닦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이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시련과 기회를 동시에 주셨다. "자, 어서 반야용선에 올라타거라. 매몰찬 파도를 헤치고, 추운 날씨를 버텨보아라"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 또한 걱정이 되셨던 걸까? 구제 역할을 하는 보살님들까지 손수 데리고 오셔서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셨다. 그렇기에 반야용선도는 단순히 극락에 가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 아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따스한 모습이 담겨있는 사례다.

곧 즐거운 휴가철이 다가온다. 바다도, 산도, 해외도 모두 다 좋지만, 이번 휴가 때는 조금만 시간을 내어 사찰에 가보는 건 어떨까? 시원한 바다와 따뜻한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반야용선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말이다.

무더위를 반야용선도의 청아한 파도 소리로 해소하길 바라며 다음 호에도 바다를 상징하는 사찰 속 숨은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김용덕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